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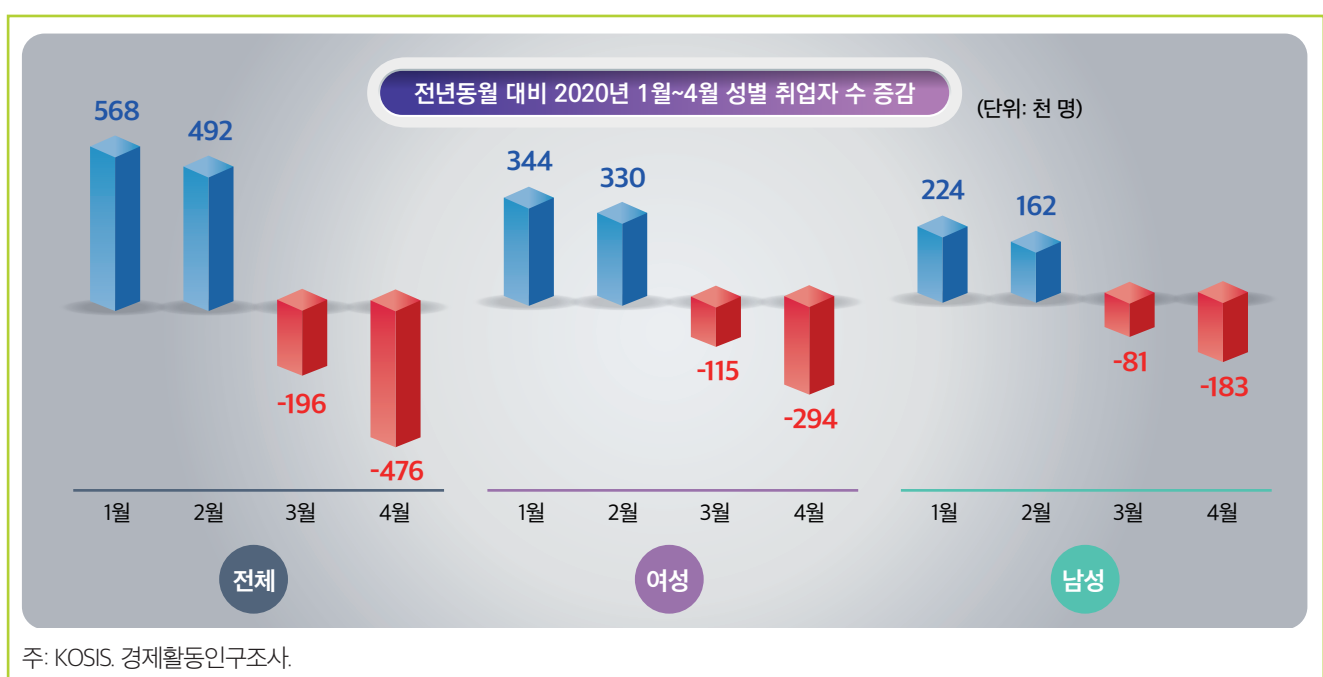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작성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6 / E-mail: eunjin5@kwidimail.re.kr)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여성 노동자 특성과 소득보장정책의 성인지성 검토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현재 여성고용현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소득보장을 위한 위기대응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받은 충격이 더 크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충격이 있었음.
 - 여성노동자의 경우 저학력 여성, 특히 임시직 여성들의 피해가 컸으며, 여성들의 경우 전문가,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취업이 감소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정부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생계비 지원정책을 긴급하게 시행했음에도 가구주 중심의 생계유지비 지원, 초기 특수고용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돌봄으로 인한 여성고용 공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설계가 제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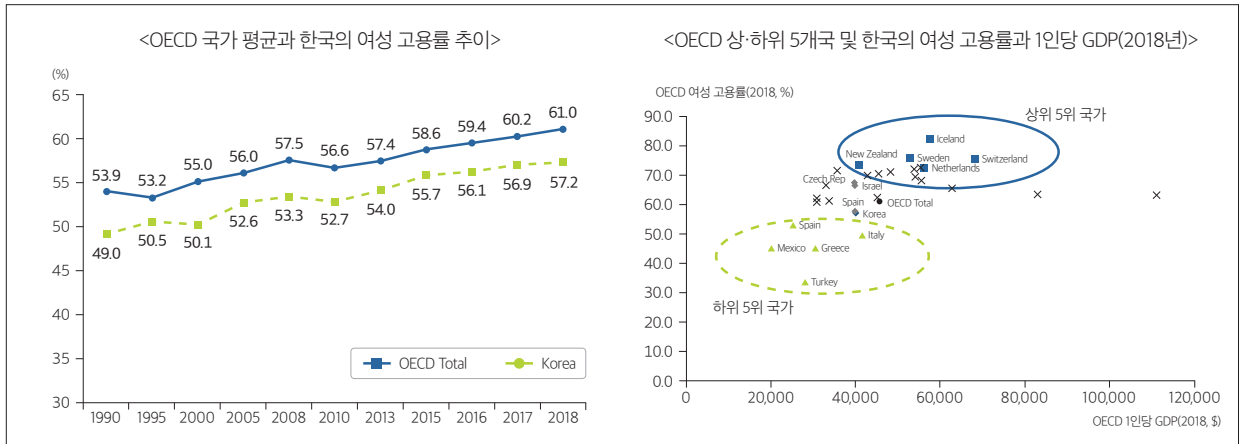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은 낮은 상황임. 특히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림 1> OECD 여성고용률

(단위 : %)



자료: OECD Stat

- 우리나라 여성고용률 상승의 한계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요인에 의해 원하는 직장으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력개발의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성인지적 정책을 구상하고 수행하여 왔음. 육아휴직제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직장문화의 개선 등 여성에게 부과된 다양한 가족·사회 내 책무를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시장은 앞서 언급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움. 최근의 감염병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은 이런 여성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전문가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태를 Pandemic이 아닌 Endemic으로 보는 견해가 높은 가운데, 여성고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함.
 - ▶ 여성고용이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지원제도가 성 중립적인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현재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여성노동자들이 현재의 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인지적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논고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현재 여성고용현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소득보장을 위한 위기대응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함.

2. 코로나19에 의한 여성의 고용 현황: 위기 집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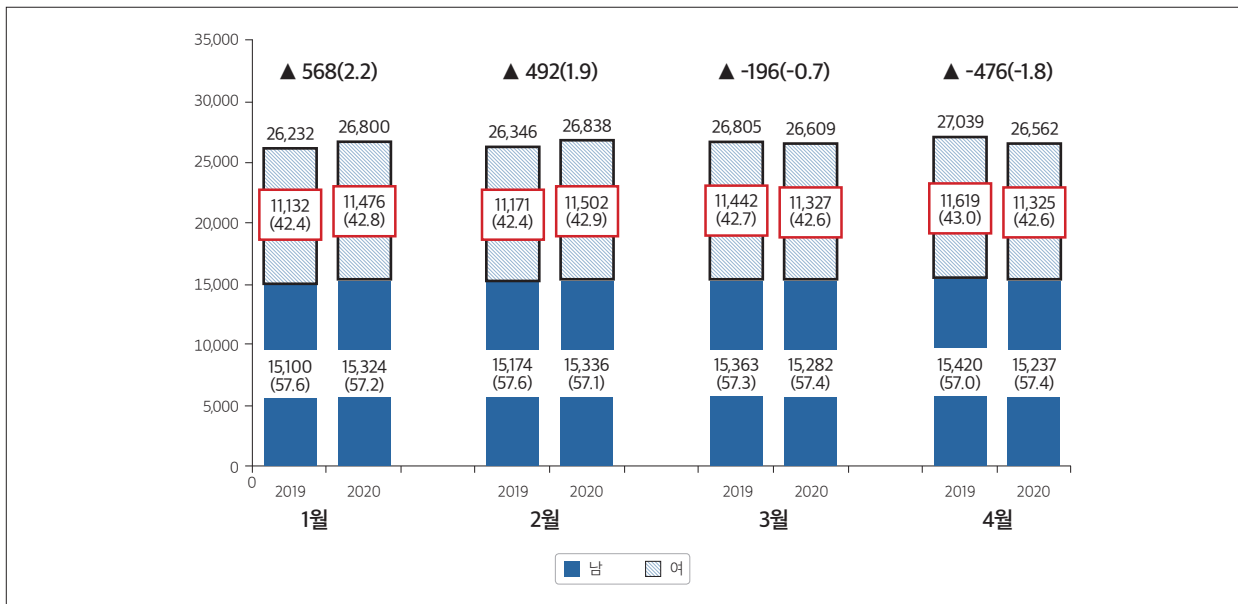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의 고용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실체가 구체화되기 이전인 2020년 1, 2월의 상황은 2019년 대비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19년 상반기 상황과 비교해 보면 1, 2월 모두 여성노동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었음.

▶ 남녀 취업자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2019년보다 나아지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3, 4월에 이르면 전년 동월 대비 남녀 취업자의 구성비도 더 나빠지면서 동시에 여성취업자가 남성취업자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은 3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15천명이 감소했으나, 4월에는 294천명이 감소했음. 동기간에 남성은 각각 81천명, 183천명 감소하고 있어서 여성고용의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의 감소 추이를 직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1, 2월의 경우는 여성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었음. 1월의 경우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대부분 직종에서 여성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었음. 그러나 관리자,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감소 추이에 있었음.

- 2월에도 이런 추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조금 다른 상황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서 여성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전년 동월대비 3월에는 106천 명, 4월에는 134천 명이 감소하였고 전 직종 중에 감소폭이 가장 큰 직종이 되었음. 서비스 종사자는 1, 2월까지 증가세였으나, 4월에 특히 큰 폭의 감소 현상을 보였으며, 판매 종사자의 감소 추이는 더 가속화되었음.
- 특히 3, 4월에는 단순노무 종사자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음.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들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들도 지속해서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사무직 종사자들만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업종으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다른 업종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섬을 알 수 있음. 대체로 여성취업 증가를 견인했던 대부분 업종들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여성취업의 타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표 1>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직업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직업	1월	2월	3월	4월
전체	344	330	-115	-294
관리자	-16	-12	-10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	-3	-106	-134
사무 종사자	48	60	56	43
서비스 종사자	132	125	-6	-77
판매 종사자	-22	-11	-79	-6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	31	73	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7	-12	-21	-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	-16	-22	-43
단순노무 종사자	158	169	0	-42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직업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동향

(단위: 천 명)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직업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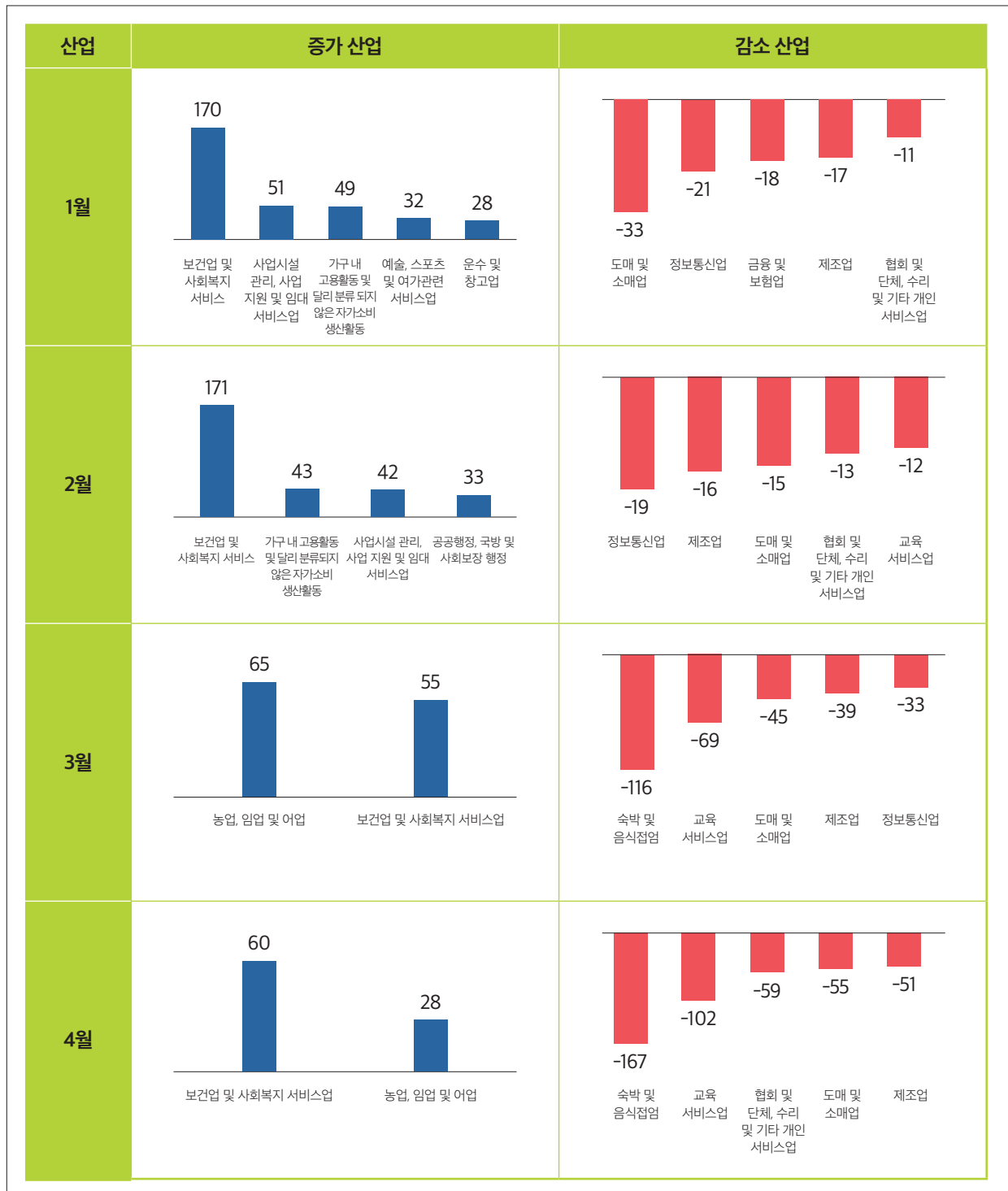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산업	1월	2월	3월	4월
전체	344	330	-115	-29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25	65	28
광업	1	1	1	1
제조업	-17	-16	-39	-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9	8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	-4	1	1
건설업	-3	11	13	14
도매 및 소매업	-33	-15	-45	-55
운수 및 창고업	28	30	32	17
숙박 및 음식점업	21	-6	-116	-167
정보통신업	-21	-19	-33	-23
금융 및 보험업	-18	-4	-2	-12
부동산업	17	16	6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9	-16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1	42	23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33	-21	-13
교육 서비스업	15	-12	-69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0	171	55	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	27	4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13	-23	-5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9	43	34	27
국제 및 외국기관	4	4	3	1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산업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동향

(단위: 천 명)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특히 3, 4월로 갈수록 20대와 40대 여성고용의 타격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에서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고졸 이하의 여성에서 취업이 감소하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음.

<표 3>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연령 및 교육수준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연령/ 교육수준	1월			2월			3월			4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568	224	344	492	162	330	-196	-81	-115	-476	-183	-294
연령별												
15 - 19세	3	-3	5	-25	-15	-10	-54	-31	-22	-87	-49	-38
20 - 29세	62	87	-24	-24	26	-50	-176	-54	-121	-158	-39	-120
30 - 39세	17	-8	26	19	-37	56	-108	-76	-31	-172	-89	-84
40 - 49세	-84	-68	-16	-105	-68	-37	-120	-59	-62	-190	-87	-103
50 - 59세	62	23	39	57	17	39	-74	-17	-57	-143	-51	-93
60세이상	507	192	315	570	238	331	336	157	179	273	131	143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24	32	92	155	32	124	-67	-40	-27	-161	-102	-59
고졸	236	94	143	113	28	85	-154	-74	-79	-292	-103	-188
대졸이상	209	98	111	224	103	121	25	33	-9	-23	22	-46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 는 종사상 지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것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임시근로자의 경우 여성노동자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을 보면, 소규모 점포에서 고용했던 소상공인들이 1인 자영의 형태로 업무형태를 바꾼 것으로 해석됨. 임시일용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이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월~4월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종사상지위	1월			2월			3월			4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568	224	344	492	162	330	-196	-81	-115	-476	-183	-2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	-130	-33	-146	-117	-28	-194	-144	-51	-179	-126	-5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3	91	63	148	90	59	124	80	45	107	64	43
무급가족 종사자	9	20	-12	-8	20	-28	8	24	-16	-22	7	-29
상용 근로자	663	392	271	617	323	294	459	230	229	400	192	209
임시 근로자	-32	-129	96	-13	-99	87	-420	-193	-227	-588	-218	-370
일용 근로자	-62	-21	-41	-107	-54	-53	-173	-76	-95	-195	-102	-93

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노동시장에서 남성취업자에 비해 여성취업자가 받은 충격이 더 큼.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충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 특히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성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은 여성들의 경우 전문가라 할지라도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
- ▶ 여성취업자의 경우 전 학력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이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즉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 특히 상용에 근로하지 못하고 임시직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피해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하리라 예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 판매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서비스업 역시 고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임. 따라서 다소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함. 이 두 업종 모두 기술진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며, 코로나19 사태가 기술에 의한 산업 혁신을 당겨올 것으로 여겨짐. 이 업종에 여성취업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여성취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저학력 여성, 특히 임시직 여성들의 피해가 큰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이 빈곤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한 정부의 가구 내 소득보장정책은 성인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성인지적인가?



정부의 대상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를 가구, 근로자,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구조화한 것으로 보임.

- ▶ 중앙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전략 중 가구대상 소득보장정책은 <표 5>에 제시한 내용임. 해당 정책이 얼마나 성인지적으로 활용되었는지는 수혜자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우선 지원의 절차적 문제를 확인함에서도 젠더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가장 큰 문제는 가구주 중심의 지원정책에 있음. 현재는 신청자격을 가구주에 한하는 것으로 되었음. 따라서 신청도 지급도 모두 가구주를 전달체제로 지원하고 있음.
- ▶ 전통적으로 빈곤과 관련한 지원은 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 때문에 이번 정부 지원정책도 국민의 빈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면 이런 지원방식이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지원정책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맥락일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 차원에서 가구주에게 분배를 일임한 것은 다른 비가구주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음.
- ▶ 특히 여성빈곤과 관련해서는 이 가구주 중심의 지급체계가 늘 문제가 되어왔음. 실질적으로 가구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가구도 상당히 많고, 또는 폭력가정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구주가 “선”하다고

가정한다면 이 분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각주의 몫을 가구주가 편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몰성적이라 할 수 있음.

- ▶ 이외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맞벌이 가구 경우에도 소득공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는데, 현재는 지급이 가구주에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 역시 가구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됨. 대체로 가구주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라 하기 어려움.
- ▶ 유사한 재난지원금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지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음.
- ▶ 40대 임시직 여성들이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든 주요 원인인 돌봄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1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문을 닫아 유례없이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현재 제안하고 있는 돌봄지원방식은 맞벌이 가구 대상의 돌봄지원 방식이 아닌 저소득 가구지원 방식의 돌봄에 한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개별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시직 여성들의 경우,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 또는 돌봄을 이유로 자진 퇴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표 5> 정부 코로나19 가구 대상 지원정책

프로그램	상세 내용
긴급재난 지원금	① 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② 규모: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③ 방식: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 요일제 운영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 일(모두, 방문신청은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적용 제외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제한 업종은 사용 불가
특별 돌봄쿠폰	①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
	② 규모: 월 10만원 × 4개월
	③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돌봄포인트 등으로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①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약 138만 가구
	② 규모: 4개월 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4인 가구 기준)
	③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수령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①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기존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재산 차감기준 신설(3,500~6,900만 원),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기준 65% 차감 → 100% 차감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프로그램	상세 내용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② 규모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4인 기준 1,450.5 천 원)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98천 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③ 방식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특별돌봄쿠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02>)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link>),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657)




<표 6> 정부 코로나19 근로자대상 지원 정책

프로그램	상세 내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① 대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② 규모: 최대 월 50만 원 × 3개월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③ 방식: '20. 6. 1.~7. 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및 연소득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제출 원칙 - 6.12.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비고)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지정, 휴업수당 지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증진 * 특고·프리랜서 업종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1)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2)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3)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5)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6)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규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중소중견 기업 채용보조금	①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가입 ③ 방식: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

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02>)

민생 지원 안내

- 
 근로자 대상 정책은 지원제도의 성인지성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짐.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근로자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일선 지급 담당자들도 정부의 의중을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임.
- 
 기본적으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또한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의 형식이 이 부분에 적용하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임.
- 
 가이드에서 세분화하여 제시는 하였지만 “웹툰작가나 웹소설가”등은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도 일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아래의 가이드로 다 커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임.

<표 7> 정부 코로나19 사업장대상 지원정책

프로그램	상세 내용
고용유지 지원 확대	①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2020.4.1. ~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② 규모: 업종 관련 없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기존 74%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 확대 - 대기업의 지원수준은 동일
	③ 방식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①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② 방식: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청년 일 경험 지원	①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③ 방식: 월 80만원 × 6개월

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1)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02>)

<표 8>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대상 지원 정책

프로그램	상세 내용
코로나19 피해/폐업점포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한 점포(최대 3백만 원)
	- 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한 점포(최대 1백만 원)
	-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 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주: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02>) 민생 지원 안내

사례	프로그램	상세 내용
경기	재난 기본소득	① 대상: 모든 경기도민 -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 외국인 주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확대지급 예정
		② 규모: 1인 10만 원 ③ 방식: 4. 20. ~ 7. 3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 방문 신청 후 선불카드(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한정 사용 가능) 수령 -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 확인) 작성 - 온라인신청: 종료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 4.9.~4.30.(종료) - 대리신청: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신청·수령 가능함 - 18개 시군에 한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과 통합신청 가능

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또는 현재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설계·지원되고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 지원체계 설계와 함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설계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기를 제안함.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